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명교회 담임

목회 현장은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다. 영과 육체의 질병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다리고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목회 현장이다. 그 중에 예기치 못한 육체의 질병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누군들 살면서 오늘 같이 참담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 말이다. 그 고난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한다. 오죽했으면 어쩔프고 철이 없을 때 고난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임을 주세요”라는 영혼한 기도를 했겠는가. 얼마 전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을 찾았다. 너무 허무했다. 이곳에서 159명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이 들리는 듯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30세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 역사에 탁월한 기독교 변증사들을 많이 썼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애매모호한 하나님이라고?”

그중에 “고통의 문제”와 같은 책은 인간 고통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치밀한 통찰이 단연 돋보이는 책이다.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한 존재라면, 왜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논리적이고도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간다. 그런데 루이스가 쓴 고통에 대한 책 중에 “헤아려본 슬픔”은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책이 아니다. 그가 직접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토해낸 고백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루이스는 59세의 늦은 나이에 여류 시인 조이(Joy)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조이가 악성 골수암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결혼 후 불과 4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에 쓴 책이 “헤아려본 슬픔”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내를 고쳐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러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 싫다. 글쓰기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조차 버겁다. 수영 짝은 일조차 하기 싫다.” 철저하게 무력감에 짓눌린 자신의 모습 앞에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가? 또한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광탈고 나간다. 그리고 문지방을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철저하게 거절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 속에서 ‘괴물’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설가 박완서(1931년~2011년)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자식을 잃은 참척(慘戚)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의 고통과 슬픔의 절절한 내면 일기이다. 1988년 여름, 박완서의 1남 4녀 중 아들이 사망한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 봤지만 88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다.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아들이 죽은 후 고기를 입에 넣은 적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였지만, 그 애가 죽던 날 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난히 맛있게 등심구이를 아귀 아귀 먹은 생각을 하면 진저리가 쳐져서 생전 고기를 먹을 것 같지가 않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장 46절) 하고 절규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느냐고 물었다. 그는 고뇌하며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계셨다고 여기서 루터의 유명한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개념이 나왔다. 어거스틴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묘사한다. 만일 듯한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치 하틀레에 저항하며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인 본 회퍼는 숨어버리신 듯한 하나님을 ‘애매모호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천재적인 수학자에서 신실한 구도자로 변한 파스칼도 광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 말하는 종교는 거짓되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니콜라스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에서 동반 사고로 아들을 잃고 나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파스칼도 광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에 관한 아무 설

명도 할 수 없다. 너무나 깊고 가장 고통스러운 신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인내하는 것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다. 또한 내 아들이 삶의 절정에서 겪은 사실도 믿는다. 이 두 조각을 나는 끼워 맞출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일이 추락하시는 것을 지켜만 보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상처받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추측도 할 수 없다. 대답 없는 질문이 내 상처인 것이다.” 대답 없는 질문이 내 상처다라는 문장에 가슴을 울린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뿐 아니라 신앙의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믿음의 영웅들 또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왔다. CS 루이스도, 박완서도, 그리고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조차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신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청했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되물었을 뿐 대답하지 않으신다.(창32장 29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괴로움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 ‘애매모호한 하나님’처럼 보일 때 우리는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추구할 뿐이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우리가 추구하며 부를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솟아나는 천연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샘 이름이 기혼입니다. 고대에는 그것이 그 도시의 유일한 상수원이었고 성벽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무방비의 샘은 침략자가 샘의 흐름을 돌려 버리거나 막아버리면, 난공불락의 그 도시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샘에서 도시 안의 저수지까지 물을 흘러가도록 500여 미터의 바위 터널을 뚫어 이 약점을 해결했습니다.

결점

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물 공급이 보호받지 못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벽 밖의 샘은 그 도시의 주민들이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머리를 써서 500m가 넘는 바위를 뚫어서 스스로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나을까요?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다가 그토록 어려운 공사로 물길을 성 안으로 돌려놓았어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의 결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보다 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점을 보완할 방법을 우리는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흠 없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일이 힘들어서 그냥 결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샘의 근원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이 포위되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

다 훨씬 효과적이고 합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강성하여 주변에 사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는 불순종한 왕과 백성들이 많아져서 나라가 쪼그라들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버터 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땅 밑으로 바위를 파내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지요. 당신은 무슨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 결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결점이라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결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 보았자 실통치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결점을 우리 스스로 통과하지 않고 피해버린다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임석인 목사
광주크리스찬이카데미대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직장인클럽 100일 묵상집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당신의 인생 작품은 무엇인가?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다. 교향곡을 작곡해서 이름을 날리겠다는 꿈을 가진 글렌 홀랜드가 잠시 음악교사가 되었다가 평생의 역작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단 한 곡 작곡한 교향곡 《아메리칸 심포니》가 아니었다. 과연 홀랜드 선생님의 작품(ops)은 무엇이었을까? 열등감에 빠져 어려움을 겪다가 극복한 한 제자가 주지사가 되었는데, 선생님의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바로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쓰신 작품의 음표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작곡하셨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의 작품은 바로 평생 성공하기를 바라며 작곡한 한 편의 ‘교향곡’이 아니라 사람으로 키워놓은 ‘제

작품’이라는 뜻이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 사람을 섬긴다.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셨으면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하듯이 운전하는 일로 부르셨으면 목적지까지 내 차를 타는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판매하는 일로 부르셨으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남을 가장 귀중한 유산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섬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전도의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고유의 직업적인 소명에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을 우리의 평생 작품으로 만드는 귀한 일터사역이다.

>>> 일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어, 사람에게 집중하며 평생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 (원동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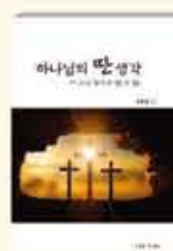
당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서전 · 회고록 · 설교집, 교회사,
요람, 사보, 교회소식지,
동호회집지 등 모든 출판물

도서출판 미션리



한 평생 앞만보고 달려왔습니까? 이제 잠시 멈춰 서서 달려온 인생길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틈틈이 기록해 온 글들, 오래된 책상에서 푹 튀어나온 빛바랜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자서전, 회고록 등으로 자나 삶의 궤적을 남겨 보십시오.
도서출판 미션리 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설교집 · 교회사 · 사보 · 교회소식지 등 어떤 형태의 인쇄물도 언론사 경력 30년이 넘는 전문 편집인이 도와드립니다.
원고정리에서 교정, 편집 · 디자인 · 출판까지 맡겨주세요.



출판상담 정선화 편집장 겸 총괄이사 010-4602-7825

도서출판 미션리 TEL 062-367-9109, FAX 062-367-9108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69 (3층) / E-mail : phj2930@nate.com